

## 47세 이효리 여전히 여전한 미모...플메이크업 오랜만이네

등록 2026.05.31 16:30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가수 이효리가 평소 수수한 모습에서 벗어나 플메이크업을 한 채 한껏 꾸민 모습을 보여줬다.

이효리는 31일 인스타그램에 화장을 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올렸다.

사진 속 이효리는 짙은 눈화장에 입술도 빨갭게 칠하고 있다.

서울에서 요가원을 운영 중인 이효리는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요가 운동복을 입은 모습을 주로 보여줬었다.

이효리는 1979년생이다.

